

요 약

◆ 고용보험 적용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 임금근로자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이 48.9%로 상승

2000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수는 64만개이며, 피보험자수는 648만명으로 1999년 12월 말에 비해 사업장수는 12.0%, 피보험자수는 10.9% 증가한 것이다. 또한 총취업자수가 2,139만명이고 임금근로자수가 1,327만명으로 추산되어 총취업자의 30.3%, 임금근로자의 48.9%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 76만명, 재취득자 98만명

2000년 상반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175만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신규취득자는 43.7%인 76만명이고 재취득자는 56.3%인 98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보험자격 재취득자 중에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취득한 자는 10만명이었고, 신규취득자 중

에서는 13만명이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1999년 하반기에 비해 11만원 증가

월평균 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 116만원, 여자 81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3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규취득자를 제외한 재취득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에서(남자 136만원, 여자 68만원), 학력별로는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액의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대졸 남자 153만원, 여자 107만원, 대학원졸 남자 206만원, 여자 154만원)

-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재취득 소요기간 77일

재취득자 76만명의 재취득 소요기간은 77일로 1999년 하반기 75일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의 경우 81일로 남자보다 약 1주일 정도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20~24세 연령층에서 약 3개월 정도로 나타나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득 소요기간

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중졸 제외), 특히 대학원졸 이상이 49일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현저히 짧게 나타났다.

-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직장이동은 제조업 및 사무직 내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

2000년 상반기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직장이동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내에서의 이동이 26.8%, 직종별로는 사무직 내에서의 이동이 16.1%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종업종 및 직종 내 직장이동을 보면,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사업에서, 직종은 사무직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가장 저조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4.1%)과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30.2%)의 경우 전직(轉職)시 대부분 타 업종 및 직종으로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자>

-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00년 상반기 동안 전체 피보험자 대비 22.0%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하반기 21.6%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상실사유별로 보면,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의 22.9%로 1999년 하반기 26.1%에 비해 낮아졌

으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비자발적 이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하반기(35.0%)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26.8%가 이직 후 한 달 내에 재취업

2000년 상반기 동안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재취업 여부를 분석한 결과 26.8%가 한달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이직자를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이직자의 46.8%가 6개월 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27.6%가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재취업기간이 길수록 재취업률이 매월 3~4%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18.8%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는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말한다. 2000년 상반기에 비자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7.7%, 6개월 이상인 경우가 82.3%로 나타났다. 후자를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약 22만명으로서 동 기간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21

%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사업 활용인원 및 금액 크게 감소

2000년 상반기 고용안정사업 활용인원 및 금액은 24만명, 637억원으로 1999년 하반기에 비해 활용인원은 31.1%, 활용금액은 22.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과 경기상승으로 인해 고용안정사업중 일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지원금액이 큰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채용장려금의 활용이 다소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 하겠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꾸준히 증가추세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용안정사업 활용실적을 보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등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더불어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휴업수당지원금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시기별

로 지원실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그 변화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비중 1999년 상반기 대비 124.8% 증가

2000년 상반기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총지원금은 2,196억원, 지원인원은 69만명, 지원사업장수는 약 4만개로 전년동기 대비 지원금은 7.5%, 지원사업장은 57.3%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의 확장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금은 약간 감소(15.2%)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크게 증가(124.8%)하였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사업장 및 인원 모두 증가 추세

2000년도 상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을 보면, 총 약 2만개 사업장에서 56만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624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사업장수는 2배, 지원인원과 지원금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증가는 훈련내용

상 향상훈련과 양성·자체훈련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정보통신 분야,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주요 훈련직종으로 대두

2000년 상반기에 훈련을 시작한 실업자재취직훈련생들이 가장 많이 받은 훈련직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전체 훈련생의 34.3%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전체 실업자재취직훈련생에 대한 직종분포가 서비스 분야 25.6%, 정보통신 분야 21.8% 사무관리 분야 15.7% 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정보통신 분야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30대이며 전문대졸 이상인 남자가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 2000년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국실업자 대비 7.9%

2000년 상반기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국 실업자 대비 7.9%로 나타나 전반기와 전년 동기대비 각 10.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급률의 하락은 비자발적 상실자수의 비중이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업급여 지급실적을 보면, 총지급액은 2,279억원으로 1999년 하반기의 총 3,848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월평균 지급인원도 전반기의 12만명에서 8만명

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1999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 실업급여 신청소요기간은 평균 44일

실업급여 신청소요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이직 후 얼마나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했는지를 뜻하는데, 2000년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이직 후 평균 44일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상반기에 58일로 가장 길었고, 실업급여제도가 자리잡은 1998년 이후 40일대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000년 상반기 임금대체율 48.8%

임금대체율은 실직 전에 받던 임금의 어느 정도 수준을 실업급여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2000년 상반기는 48.8%로 1999년 하반기의 45.2%보다 높아졌다.

- 경영상 필요로 인한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감소

이직사유별로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를 보면, 권고사직이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그 비중이 1998년 하반기에 정점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52.7

%), 계약만료·공사중단(14.5%), 폐업·도산·공사중단(9.4%),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7.8%), 자발적 이직(6.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